

반어법으로 쓴, 쉬운 전문용어를 위한 제안서

이광근*

이 글은 [동아사이언스](dongascience.com)의 ‘쉬운 우리말쓰기 기획’ 2회 자문단에 참여하면서 2021년 12월 9일 인터넷에 올라간 글이다.

당연한게 아닐까. 우리나라에서 전문용어는 영어나 한문이 제격이다. 영어가 제격인 이유는 세계 공용 전문가 언어가 영어이기 때문이다. 한문이 제격인 이유는 긴 전문개념을 짧게 우겨넣는 번역에는 한자가 안성맞춤이기 때문이다.

모국어는 전문가용으로 어색하다. 아기때부터 어머니에게 익히며 몸과 하나된 저급한 모국어다. 오랜기간 절차탁마 애써야 인정받을 수 있는 전문분야 고급 공부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영어나 한문이 전문용어로 안성맞춤인 이유는 두 가지 정도가 더 있다. 하나는 영어나 한문이 전문가임을 정의하기 때문이다. 전문가의 문장이 쉬웠다면 전문가로서 있어보이지 않는다. 내 문장을 단번에 알아듣지 못해야 나는 전문가가 다워진다. 넘어서지 못하게 말하고 해설을 따로 붙여주는 모습이 전문가의 진면목이다.

영어나 한문이 전문용어로 안성맞춤인 다른 이유는 전문가들이 바쁘기 때문이다. 굳이 전문용어를 쉽고 평이하게 번역할 짬이 없다. 그런데 운 좋게도 한자를 공유하는 일본이나 중국에서 이미 늘 먼저 번역해 놓는다. 그걸 빌려다 쓰면된다. 쉬운 모국어 번역은 어려운 작업이다. 용어가 전달하려는 개념을 여러면에서 정확히 이해해야 쉬운 말로 번역이 가능하고, 엄숙 점잖은 전문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홈페이지 kwangkeunyi.snu.ac.kr

가의 모습을 내려놓는 용기도 필요하고, 세밀한 모국어 소양도 받춰줘야 하는 일이다.

전문용어는 어차피 전문가용 아니던가. 우선은 전문가들끼리 효과적으로 소통하는데 집중하면 되고, 그러다 나오는 멋진 성과들에 대해서만 널리 쉽게 전하면 되지 않을까. 효율적인 분업이다. 모두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기.

그렇다면 영어는 어찌된걸까? 평이한 영어 단어들이 과학의 언어다. 지금도 평이한 영어로 전문용어를 만든다. 라틴어로 한 꺼풀 씌우지 않는다. 라틴어였다면 공평할텐데. 과학하는 언어가 그들만 편한 영어쪽으로 기울어지진 않았을테니. 아무튼 평이한 영어가 전문용어가 된 연유는 뭘까?

두 가지가 역할을 했다고 한다. 돈과 청교도다. 영국왕립학회(Royal Society)로 거슬러 올라간다. 1660년 조직된 이 모임은 과학자들의 사설조직이었다.¹ 초창기 멤버들은 당시 왕과 정치-종교면에서 반대에 선 사람들이었다. 또 당대 전통 학문의 관성을 거부하며 새 시대를 열 수 있다고 믿는 과학자들이었다. 그런 연유인지 중앙정부에서 예산지원을 받지 않았다. 항상 돈에 쪼들렸고 필요경비를 자급자족해야 했다. 그래서 돈벌 방법으로 책출판을 선택했다. 회원들의 성과를 책으로 엮어내는 것이었다. 최초의 과학저널이었다.

그런데 책이 많이 팔리려면 누구나 읽기 쉬워야했다. 명확하고 쉽고 간단한 통속적인 일상 영어로 당시 태동하던 과학을 설명해야 했다. 쉽고 간단하고 명확하게. 길치레를 거부한 청교도들이었던 초창기 회원들이 학회 강령처럼 새기고 있던 자세와도 어울리는. 심지어 당시 존 드라이든(John Dryden)이라는 시인을 회원으로 모셔와 초창기 과학자들에게 쉽고 직설적인 모국어 글쓰기를 가르치게 했을 정도다.

한국 사회는 그럴 정도로 절실한건 없다. 전문용어를 굳이 쉬운 우리말로 풀어쓸 동기가 있을까. 글썸다. 우선 과학자들이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데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급하다. 또 우리에게겐 우리대신 한자로 번역어를 만들어 주는 일본과 중국이 옆에 있지않은가.

누구는 걱정한다. 혹시 이러다 300년마다 망하는 수준으로 주저앉던 우리의 과거를 반복하는 건 아닐지. 집단 지력이 낮으면 더 높은 집단에 늘 당한다면서. 조선이 망한 이유는 조선의 지력이 몇몇 학자들에만 머물러 맴돌았기 때문이라

¹그래서 “왕립”이라는 번역은 오해를 산다. “영국과학회” 정도가 실체에 가까운 번역이다. “Royal”이라는 접두사는 여기서 “조선/한국/전국” 정도의 느낌에 가까운듯하다.

면서. 온 전문지식이 온 백성의 지력을 높일 수 있도록 널리 퍼지지 못했다면서. 그래서 더욱 발전할 힘을 얻는 선순환을 만들지 못하고 쪼그라들었다면서.

과연 그럴까. 설령 그러면 어떤가 싶기도 하다. 우린 신속하게 늘 따라잡았다. 망하면 한 50-60년 힘들고 비참한 기간을 겪지만, 그들의 언어로 전문용어를 새로 구사하는 새 시대 전문가들을 항상 길러냈다.

아래 글을 최근 어느 번역서 서문에서 읽었다. 글쓴 사람은 분명히 한가한 전문가다.

([기계학습을 다시 묻다]의 “번역을 퍼내며”에서. 인사이트. 2021.)

전문용어는 최대한 쉽게 풀어 썼다. 전문개념의 핵심을 쉽게 전달하도록, 최대한 쉬운 일상어로 풀어 번역했다. 학술은 학술의 언어를 -우리로서는 소리로만 읽을 원어나 한문을- 사용해야만 정확하고 정밀하고 경제적이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아무리 정교한 전문지식이라도 쉬운 일상어로 짧고 정밀하게 전달될 수 있다고 믿는다. 시에서 평범한 언어로 밀도 있게 전달되는 정밀한 느낌을 겪으며 믿게 된 바이기도 하다. 전문용어는 항상 해당 우리말 아래에 원문을 이탤릭체 첨자로 덧붙였다.

아래 글을 만나기도 했다. 글쓴 사람은 분명히 현실 감각이 없는 교수다.

(서울대 대학신문 2011년 3월 21일자 [관악시평] “영어강의, 성균관, 패러데이”에서)

기우일까? 모든 학문이 오리지널을 능가하는 것은 항상 어머니의 혀 (모국어)로 달성된다고 한다. 영국 과학기술은 라틴어나 불어로 꽃피지 않았다. 중국 불교는 산스크리트어로 인도를 넘어서지 않았다. 반면 우리의 성리학과 불교는 중국어로만 머물렀고, 중국의 것을 넘어섰다는 소식은 드물고 아스라할 뿐이다. 지금은 영어로 같은 과거를 반복하고 있다. 단절될 것이고, 오리지널을 넘기 벽잘 거라고 본다.

모국어로 공부하기란 어떤 걸까? 예를 들어 “만유인력”, “universal gravity”라는 용어를 보자. 누구에게나 “만유”의 뜻이 쉽게 전달될까? 아마도 대다수는 소리로만 건성으로 지나치기 십상일 것이다. 영어(중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느낌을 살려 “universal gravity”(“완요우인력”)를 우리식으로 읽으면 “만유인력”이 아니라 “어디나있는 끄는힘”일 것이다. 쉬운 모국어가 아니라면, 소리로만 이해없이 주입되는 전문용어 일 뿐이다.

이렇게 외국어로 곁도는 이해를 쌓아가게되면, 그 결과는 깊은 공부에 필요한 뒷심 부족으로 나타날 것이고, 깊은 공부를 달성하는 인구는 그 만큼 쪼그라들 것이다. 카오스 이론을 빌려 말한다면, 결과의 엄청난 차이는 초기조건에 미세한 차이에서 온다고 한다. 영어강의는 잘못된 초기조건이라고 본다. 서울대생이라면 영어소통에 능해야 하는 것은 기본. 우리는 그 나머지를 지향해야한다.

“Rede Lecture Series”라는 것이 있다. 캠브릿지 대학에서 일반 대중을 위한 강연 시리즈로 현종때(1668년) 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들은 라틴어나 프랑스로 연구하고 강의하고 저술하지 않았다. 저변을 넓히고 토양을 풍부하게 하는 것은 모국어를 통해서 밖에 없다고 판단했고, 모국어로 캠브릿지가 생산하는 지식을 대중들에게도 열심히 강연하는 시리즈까지 시작한 것이다. 중국어로 소수끼리만 소통하며 서서히 망해갔던 조선과 너무 대조되는 점이었다.

우리와 비슷한 인구의 영국이 모국어로 힘차게 축적한 지식들. 그러다보니 패러데이(Faraday) 같은 인물을 놓치지 않고 키워냈던 것이다. 영국 국민이 그 어느 누구보다 사랑했다던 과학자. 지금의 전자기 문명의 아버지인 패러데이는 책제본 공장의 불우한 노동자였다. 하지만 그가 제본하는 과학서적들이 모국어였던 덕택에 그는 제본소로 들어오는 모든 책들을 읽으며 당시의 과학기술을 익혀갈 수 있었다. 모국어 토양 덕택에 이런 재능들이 고사되지않고 소중히 자랐던 것이다. 일본이 모국어로 꾸준히 축적한 성과들. 덕택에 지금 일본은 다나카같은 중소기업 직원이 노벨상을 받는 나라가 되었다.

서울대에서 시작됐으면 한다. 쉽고 수려한 모국어 전공서적 집필 사업. 따사로운 모국어로 권위있는 전문서적들이 축적되지 않으면 한국의 실력은 깊은 숲으로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 국제화가 필요하면 할 수록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얇은 실력이 아니라 울타리없이 경쟁할 힘찬 실력을 키우는 두터운 토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음 것도 인터넷에 떠있다. “우리말 논문쓰기의 원칙”이라는 제목이다. 청교도 색채의 영국왕립학회 1660년 강령과 어울리지 싶다.

- 전문용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도록 한다.
- 그 의미가 정확히 전달되는 일상적인 우리말을 찾는다.
- 이때, 지레 “겉먹게 하는” 용어(불필요한 한문)를 피하고, 될 수 있으면 쉬운말을 찾는다.

- 이때, 전문용어 하나에 한글용어 하나가 일대일 대응일 필요가 없이,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풀어쓸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의미의 명확한 전개.
- 전문용어는 해당 우리말 다음에 괄호안에 항상 따라 붙인다.
- 도저히 쉬운 우리말을 찾을 수 없을 땐, 소리나는대로 쓰고 괄호안에 따라붙인다.
- 기존의 용어사전의 권위에 얽매이지 않는다. 보다 쉽고 좋은 말을 찾았으면, 그렇게 쓴다. 우리 분야의 전문가인 우리가 주도한다.

이런 의견에 좌고우면말자. 우리나라에서 전문용어로 영어와 한자는 효율적인 선택이고 달콤한 품이다. 쪼그라들어 망할 것과, 선진 일등으로 나설 꿈은 생각하지 말자. 세상이 바뀔때마다 늘 다시 새 언어권의 품에 안긴 전문가를 키운 우리다.

□

지금까지 반어법으로 써 보았다. 우리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만연해 있는 영어나 한자 중심에서 벗어나 더 늦기 전에 쉬운 우리말 전문용어를 활발히 만들고 실험해보는 ‘과학문화운동’을 제안한다.